

순창군 한국형 발효식초 메카로 성장

지역미생물로 식초 연구·개발
인삼·체리식초 등 6종 상품화
홍보·지역 작목반 교육도 지속

순창군이 식초산업 관련 사업을 확장해 '발효식초 메카'로 성장하고 있다.

순창군은 지난 2014년부터 명품발효식초 사업화와 꾸준한 연구·개발을 통해 총 6종의 식초를 상품화하는데 성공했다. 식초산업 홍보 및 교육 지원 등 순창을 '한국형 발효식초의 메카'로 조성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순창의 식초산업은 향토자원과 우수한 토착 미생물을 활용한다. 신제품 6종 또한 이를 기반으로 개발됐다. 각각의 기능성이 소비자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체리식초는 수면장애 개선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이너뷰티 상품인 체리식초젤리, 항염증활성이 증대된 인삼식초도 소비자들의 입소문을 타고 판매량이 늘고 있는 상황이다.

'인삼 율사업단'과의 협업을 통해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제거한 율사발효식초, 식초한방음료, 다양한 요리에 적용 가능한 식초겨자 드레싱도 출시됐다.



순창군이 명품발효식초 사업화를 통해 개발한 각종 기능성 식초. <순창군 제공>

현재 이 상품들은 리던 매장 및 온라인 몰에서도 판매 중이다.

식초 관련 연구를 주도한 (재)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은 순창의 발효식초 제품 홍보와 지역 브랜드 제고를 위해 최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21 메가쇼'에도 참가했다.

순창군 역시 지역 작목반을 대상으로 '발효식초와 발효미생물'을 주제의 무료 온라인(유튜브)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순창군은 올해 총 사업비 18억원을 들여 순창전통발효식품 전용공장 내에 발효식초 제조 설비를 구축했다. 시험 가동을 거쳐 내년에는 본격 생산에 들어갈 예정이다.

황숙주 순창군수는 "앞으로도 발효미생물을 이용한 발효식초의 기능성과 효능을 밝혀내고, 이를 바탕으로 순창이 한국형 발효식초의 메카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순창=장영민 기자 jyg@kwangju.co.kr

군산사랑상품권 4700억원어치 전액 판매

골목상권 매출 증대 큰 도움

올해 군산시에서 발행된 '군산사랑상품권' 4700억원어치가 전액 판매됐다.

군산시는 지역 자금 역외유출 방지 및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목표로 올해 군산사랑상품권 4700억원(지류 2850억원, 모바일 1850억원)어치를 발행, 모두 판매했다고 밝혔다.

2018년 발행(910억원)을 시작한 군산사랑상품권은 올해까지 총 1조4600억원어치가 판매됐다. 군산사랑상품권의 인기는 골목상권의 경제적 효과로 나타났다.

지난해 9660개 가맹점의 부가가치신고 자료와 관내 대형마트의 매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가맹점 매출은 상품권 사업 시작 전인 2017년보다 업소당 4153만원가량 상승했다.

지역 대형마트의 이 기간 매출은 매년 적게는 8%, 많게는 1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소비유형이 골목상권으로 이동했음을 엿볼 수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내년에도 이 상품권을 발행할 계획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군산사랑상품권이 지역 내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 및 골목상권 활성화에 가시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말했다.

/군산=박금석 기자 nogusu@kwangju.co.kr

남원시, 추어식품산업 육성 16개 사업 추진

2025년까지 50억원 투입

남원시가 총 50억원을 투입해 '추어식품산업 클러스터 사업'을 추진한다.

내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전북도의 '동부권 식품클러스터 3단계 사업'의 일환이다.

시는 앞으로 ▲추어식품의 고부가가치 R&D ▲계약재배 활성화 추진 ▲유통·마케팅 고도화 ▲DNA(Data, Network, AI) ▲관광 고도화 ▲탄소중립 스마트 기술 고도화 등 5대 전략 16개 세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지난 29일 남원시청 대회의실에서는 행정, 참여주체, 전문가 등 20명이 참여한 가운데 '추어식품산업 클러스터 준비위원회'가 개최됐다. 회의에서는 본격 사업 추진을 위한 세부적 논의가 진행됐다.

준비위 위촉 위원들은 추어식품산업 클러스터

의 실질적 성과를 높이기 위해 법인설립에 대한 의견수렴은 물론, 사업 추진을 위한 각종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예정이다.

이날 준비위에서는 추어식품과 연계할 다양한 품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기능성 추어 메디푸드 제품, 관광 연계형 외식메뉴 등이 추가로 개발돼야 한다는 의견도 언급됐다. 시는 준비위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 등을 적극 검토·수렴해 추어식품산업 육성 방안에 반영할 방침이다.

전경식 남원시 부시장은 "남원에서 국·도비 공모사업으로 '내수면양식단지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추어식품산업 클러스터'까지 더해져 남원추어식품산업이 급부상하고 있다"면서 "이를 계기로 추어뿐만 아니라 부재료까지 연계 발전시켜 국내 유일의 추어 콘텐츠를 지역특화산업으로 육성시키겠다"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쌀·라면·고기... 연말 앞두고 온정 쌓이는 익산시

기업·단체·교회 등 기부 잇따라

연말연시를 앞두고 익산시에 라면과 쌀, 돼지고기 등 온정이 쌓이고 있다.

익산지역 향토기업인 (주)하림은 지난 29일 코로나19 장기화로 생활이 어려워진 이웃에게 전달해달라며 1억원 상당의 라면 1300상자를 익산시청에 맡겼다.

시는 4만1600봉의 라면을 지역 내 아동·청소년이 있는 저소득 가정과 시설에 지원할 계획이다. 박길연 하림대표는 "한창 많이 먹고 자라야 하는 아이들에게 이왕이면 건강한 라면을 맛보게 하고 싶은 마음"이라며 기탁 배경을 설명했다.

하림은 매년 정기적으로 행복 나눔 마켓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도 코로나19 의료진에 육가공제품을, 익산 나눔 공간에 즉석 삼계탕



한돈협회 익산시지부 관계자들이 지난 29일 시에 500만원 상당의 돼지고기 1400kg을 기탁했다. (900포)를 지원했다. 나눔 공간은 코로나19 여파로 실직, 휴·폐업하거나 병에 걸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에게

5만원 상당의 식품과 생필품 등을 무료로 지원하는 익산시 자체 프로그램이다.

한돈협회 익산시지부도 이날 시에 500만원 상당의 돼지고기 1400kg을 기탁했다.

이날 기부된 돼지고기는 코로나19 여파로 실직, 폐업하는 등 경제적으로 힘든 지역 내 위기가정에 배분될 예정이다.

이리남중교회도 나눔 공간에 백미 1000kg을 기부했다. 앞서 이 교회는 올해 저소득 다문화가정과 폭우로 침수피해를 본 중앙동 상가에 각각 500만원을 전달한 바 있다.

익산시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우리의 이웃들이 정말 많은데, 기업과 종교기관, 각종 협회에서 정성들을 보내주셔서 이웃들에게 위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익산=유정영 기자 yjy@kwangju.co.kr

정읍시 '안전한 겨울나기' 제설작업 준비 총력

정읍시가 겨울철 신속한 제설작업을 위해 비상근무조를 편성해 기상 상황별·단계별 대응 매뉴얼에 따라 비상근무에 돌입했다.

겨울철 신속하고 체계적인 제설작업으로 눈으로 인한 주민통행 불편을 해소하고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겠다는 의지다.

이에 따라 정읍시는 지역 내 63개 노선 408km 구간에 대해 내년 3월까지 원활한 교통이 이뤄지

도록 제설 장비와 자재 등을 사전 확보해 제설 대책 추진에 완벽을 기할 방침이다.

또 취약 구간인 과교입체교 등 주요 육교 5개소와 추령재를 비롯한 고갯길 8개소에는 모니터 요원을 활용해 예찰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대설특보 시에는 시정 전 직원이 비상 체계에 들어가 신속한 제설작업에 나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휴일과 출·퇴근 시간대의 기습 폭설

에 대비해서는 SNS를 활용한 비상 연락 체계, 사전비상 근무 예고제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제설작업 능력을 높이기 위해 자동 염수분사장치 3개소와 도로 열선 6개소를 설치했고, 1개소를 설치 중이며, 민간업체와 15t 덩크 10대를 임대 계약했다.

제설 자재 품귀현상에도 소금 1700t과 염화칼슘 1000t 등을 사전 확보했고, 모래주머니 3만 개와 제설할 100개도 시가지 주요 고갯길과 터널, 교량 등 취약지역에 배치했다.

/정읍=박기성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고품질 고창 농산물 정기적으로 받으세요"

'높을고창물' 정기구독 서비스

고창군이 직영 온라인쇼핑몰 '높을고창물' (사진)이 정기구독 서비스를 시작했다.

정기구독 서비스는 가격을 지불하면 정기적으로 상품을 보내주는 서비스로, 최근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은 장어나 고구마, 복분자 등 고창군 농산물을 2주나 1개월 등 단위로 정기 배송받을 수 있다.

정기구독 인기 농산물과 추천 농산물 등은 높을고창물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고창군은 연말을 맞아 '고창의 밥상을 담은 새해 선물 세트'도 선보일 예정이다.



고창군 관계자는 "안전한 농산물을 원하는 소비자를 위해 다양한 상품으로 구성했다"며 많은 이용을 당부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포도에서 만납시다
진혜진 시집

"타자들을 향한 따스한 말건넌의 아득한 순간"
'실존적 비애나 결핍의 장막'을 자신만의 언어로 승화

진혜진 시인 첫 시집

포도에서 만납시다

추천사

"진혜진의 첫 시집은 '사랑'의 불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끝없이 '사랑'을 상상하고 실천하고 꿈으로 각인해가는 불가항력의 과정을 담은 격정적 고백록이다. 그 세계는 때때로 실존적 비애나 결핍의 악몽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시인은 그 장막을 뚫고 자신만의 시적 진실을 하염없이 노래해간다."

- 유성호 문학평론가·한양대 국문과 교수

진혜진 시인 프로필 | 2016년 경남신문, 광주일보 신춘문예, 사산맥 등단 | 시집 '포도에서 만납시다' | 2021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아르크문화창작기금 수혜 | 제11회 사산맥작품상 수상 | 도서출판 상상인 대표